

신묘년 출가잠녀들이 부르는 망향가

제주잠녀] 제4부 '잠녀, 지키다' <171> 출가잠녀

등록 : 2011년 02월 01일 (화) 18:27:46
최종수정 : 2011년 02월 01일 (화) 18:27:46

고미기자 ✉ popmee@hanmail.net

경제적 이유 등으로 타향살이 감수...제주 근·현대사 한 페이지 장식 현재 2400여명 물질 중, "기회만 된다면 고향 바다 누비는 게 소원"

두 아들을 앞세우고 "너무 오래 살았다"는 올해 91살의 김화순 할머니는 아직도 바다에 간다. 물론도 바다는 제주보다 훨씬 차다. 한 계절이 늦은 바다 사정을 감안하면 찬 기운에 뼈마디가 시릴 만도 한데 할머니의 눈은 언제나 바다를 향한다. 고향, 오래전 소중한 이들을 두고 떠나온 고향과 닿아있는 바다만큼은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묘년 출가 잠녀들이 부르는 망향가(望鄕歌)는 숨비 소리처럼 긴 여운으로 바다 위를 휘돌아 꿈에도 잊지 못한 그 곳, 고향으로 간다.



· 전국 최고령 할머니

고향 제주바다에서 물장하던 직녀가 올랐도다 차와 만세기 이상을 제쳐로 앞면서 그 수많은 사연을 어떻게 밭고 표현 할 것이며 타 들어간 속마음을 어찌 보일 것인가 전국의 현역 할머니 가운데 최고령자 김화순(제주사 김씨 89세) 제주출신 할머니는 역경을 바다에 몸을 맡기고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물질을 하겠다는 김 할머니는 오징어 값이 나갔던 두 아들을 대상으로 바다에서 잃어 자식을 가슴에 품었지만 그 슬픔을 바다에 씻기 무렵씩 지금껏 제주바다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경제도 바다는 나한테 삶의 밭이라 강 하단 오늘날 커지도 바닷물에 물결 나가지는 겨우"라며 맘에 걸리면 감감해서 못한다고 했다.

'바다' 놓을 수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외제주도민회 연합회가 추정하고 있는 국내 출가 잠녀 수는 줄잡아 2000명이 훨씬 넘는다. 2400명 가까이 되는 제주 잠녀들이 동해와 서해, 남해까지 우리나라 모든 바다를 보듬고 있다.

출가잠녀, 여성이 본집을 떠나 멀리 시집을 가는 것에 빗대 고향 제주바다를 떠나 타 지역까지 나가 물질을 하는 잠녀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 말 속에는 제주잠녀들의 고된 삶과 설움이 고스란하다. 그대로 제주 근·현대사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가족의 품을 떠나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부터 경제적 이유로 빨라야 보름, 늦으면 한 달이 훌쩍 넘는 기간 객지 생활을 감수했다. 제주 쪽만 바라봐도 서럽고 그리운 마음에 눈

▲ 전국 최고령 잠녀 김화순 할머니 (91)

세월이 흘러 어느새 타지가 '삶터'가 되고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 그래도 고향은 고향이다. 바다를 놓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경제적 이유로 고향 떠나

출가잡녀들은 갯벌이 아닌 우리나라 모든 해안에서 만날 수 있다.

제주잡녀의 출가물질은 1895년 경상남도가 처음이었다. 이후 강원도와 전라도·경상도·함경도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 바다 건너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1903년 미야케지마(三宅島)를 시작으로 대마도·고치·가고시마·시즈오카·치바·에히메 등지에서 물질을 했다.

1937년 「제주도세요람(濟州道勢要覽)」에는 그 해 3월 말 현재 한국 각 연안에는 2801명이 출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 경상남도에 1650명, 경상북도 473명, 전라남도 408명, 충청남도 110명, 강원도 54명, 황해도 50명, 함경남도 32명, 전라북도 19명, 함경북도 5명 등으로 바다가 있는 땅이면 어디든 간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떠난 고향은 생각보다 돌아오기 어려웠다. "우리가 거기를 기억하는데 제주가 우리를 잊을 리 있어"하는 노잡녀의 목소리 끝이 떨어진다.



#마음은 언제나 제주 바다에

구좌 종달리 출신의 김계자 할머니(73)는 21살 때 충남 모항에 자리를 잡고 지금껏 딱 2번 고향땅을 밟았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예전 북제주군에서 정월 대보름들불축제를 맞아 출가잡녀를 초청하는 행사를 통해 한 번 그렇게 고향에 왔다.

17살부터 출가물질을 해 온 김 할머니에게 고향 제주는 각별하다. 지금도 능숙한 제주말은 50명 넘게 모여 작업을 하고 있는 출가잡녀들 모두 마찬가지다.

김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고향이 그리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태안기름유출 사고로 1년 반 바다에 들지 못하고 '바당'을 놓고 타박도 심한 사정들 때문인지 고향 생각이 더 간절하다고 했다.

잠겼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물질을 배우고 멀리 타향까지 나갔다는 이유로 처음 몇 년은 집에도 못 들어갔다. "어린 나이에 멀리 타지까지 겁도 없이 나갔다고 큰 언니의 불호령이 대단했다"며 "지금이야 전화통화도 자주하고 하지만 언제고 고향에서 얼굴을 뵈으면 싶다"고 말했다.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나와 다시 비행기편을 기다리고 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오히려 다른 식구들이 비행기를 타고 나와 안부를 확인하는 일이 더 많다.



▲ 통영 강옥란 잠녀

통영 강옥란 잠녀(59) 역시 하루가 멀다하고 눈을 맞추는 동향 잠녀들과 의지하며 살고 있다.

지난 1999년 조직된 ☞제통영제주나잠부녀회는 아직도 활발하다. 220여 남짓한 잠녀들 사이에서는 '제주말'을 하는 것이 무언의 약속처럼 돼있다. 어쩌다 고향 나들이라도 할라 치면 한 며칠 제주 사정을 털어놓느라 바다에 들지 못할 정도다.

강 잠녀는 "제주에서 잠녀들을 제대로 평가해주는 만큼 출가잠녀들 역시 대접을 받는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들 고향에 가고 싶어한다. 나이가 들어 물질을 그만둔 잠녀들에게는 마지막 소원이거나 마찬가지로"라고 귀띔했다. /▲특별취재반=김대생 교육체육부장·고미 문화부장·강만보 사진작가